

**Daniel: 16: Sermon Notes**

Title: “Daniel explains the dream”

Scripture: Daniel 4:19-27

Date preached: September 22<sup>nd</sup> 2024**Scripture: Daniel 4:19-27**

**19 Then Daniel, whose name *was* Belteshazzar, was astonished for a time, and his thoughts troubled him. *So* the king spoke, and said, “Belteshazzar, do not let the dream or its interpretation trouble you.”**

**Belteshazzar answered and said, “My lord, *may* the dream concern those who hate you, and its interpretation concern your enemies!**

**20 “The tree that you saw, which grew and became strong, whose height reached to the heavens and which *could be* seen by all the earth, 21 whose leaves *were* lovely and its fruit abundant, in which *was* food for all, under which the beasts of the field dwelt, and in whose branches the birds of the heaven had their home— 22 *it is* you, O king, who have grown and become strong; for your greatness has grown and reaches to the heavens, and your dominion to the end of the earth.**

**23 “And inasmuch as the king saw a watcher, a holy one, coming down from heaven and saying, ‘Chop down the tree and destroy it, but leave its stump and roots in the earth, *bound* with a band of iron and bronze in the tender grass of the field; let it be wet with the dew of heaven, and let him graze with the beasts of the field, till seven times pass over him’; 24 this is the interpretation, O king, and this is the decree of the Most High, which has come upon my lord the king: 25 They shall drive you from men, your dwelling shall be with the beasts of the field, and they shall make you eat grass like oxen. They shall wet you with the dew of heaven, and seven times shall pass over you, till you know that the Most High rules in the kingdom of men, and gives it to whomever He chooses.**

**26 “And inasmuch as they gave the command to leave the stump *and* roots of the tree, your kingdom shall be assured to you, after you come to know that Heaven rules. 27 Therefore, O king, let my advice be acceptable to you; break off your sins by *being* righteous, and your iniquities by showing mercy to *the* poor. Perhaps there may be a lengthening of your prosperity.”**

19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은 이 말을 듣자 얼마 동안 당황하며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 때문에 당황하지 말아라” 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그 꿈과 해석이 대왕께서 미워하시는 원수들에게 관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20 왕이 보신 그 나무가 크게 자라서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되었으며 21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가지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으며 들짐승이 그 그늘에서 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고 하셨는데 22 왕이시여, 이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대왕께서는 점점 강성해져서 왕의 우대하심이 하늘에 닿았고 왕의 권세는 땅 끝까지 미쳤습니다.

23 또 대왕께서 보시는 가운데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 ‘그 나무를 베어 없애 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철과 놋줄로 잡아맨 채 풀밭에 그대로 두어라. 이 사람이 하늘의 이슬을 맞고 7 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라’ 고 했는데 24 왕이시여,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게 일어날 일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25 대왕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며 7 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그때 왕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26 또 천사들이 그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고 명령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왕이 인정할 때 대왕께서 나라를 도장게 될 것을 뜻합니다. 27 그러므로 왕이시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죄를

바리고 옳은 일을 행하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왕이 계속 번영을 누리실 것입니다.”

###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ortion of scripture let's take a moment to remind ourselves of where we are in the story.

Over the past two Sundays we have considered king Nebuchadnezzar's second dream. This dream occurred towards the end of the king's life, and around 30 years after the first dream and the fiery furnace incident.

The king was troubled by a dream involving a very large and impressive tree. As with his first dream he sensed that an important message was being conveyed through the dream. Therefore, quite understandably he wanted to know exactly what the dream meant. Once again he called his “wise men” together. On this occasion he explained all the elements of his dream and then waited for them to interpret it. As before they were unable. As we noted last time the dream seems fairly straightforward. So why were these learned men unable to decipher it? The bible does not say explicitly but it seems as if God was keeping this understanding from them. He was if you will clouding their minds and preventing them from being able to interpret the dream. It is at this point in the story that Daniel, referred to here by his Babylonian name Belteshazzar arrives. The king has high hopes that Daniel will be able to help him. He remembers how the Spirit of God had come on him before and given him insight.

The king then launches into a description of the dream. In his dream state he saw a massive and imposing tree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earth. It was so tall that it could be seen by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The tree was not only tall but it was also beautiful and highly productive. The king describes three ways in which the tree served a useful purpose. Firstly, it produced a large quantity of fruit. This served as delicious food for all. Secondly, the leaves and branches provided a place of welcome shade for the animals. Thirdly, and finally the branches and boughs of the tree were a safe and comfortable place for the birds of heaven to alight and rest.

As we noted last time the tree stands as a metaphor for the king and the empire he heads. So the message is plain enough. The king, and by extension his empire provided all that is needed for the people. So far the dream has portrayed the king and Babylon in a good light. That is about to change.

As the king watches an angelic being referred to here as a “watcher” descends from heaven. As we noted this seems to refer to a special angelic messenger despatched by God to deliver an important piece of news. The message this watcher announces is that this tree is to be chopped down. Only a stump will be left in the ground along with the roots. This is a significant detail. It means that the tree is not being killed. It has the potential to grow back in the future. This reality is further emphasised by the information that the stump is to be bound in iron and bronze. We speculated a little last time on what this may mean. Are we to read this as being a reference to the king's forthcoming madness? He will be “bound to insanity” for a time. Or is it speaking of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that God will enact for the empire whilst the king is incapacitated. Either, or both may be true.

It's at this point in the dream re-telling that the emphasis shifts from describing a tree to talking about the king. Now we learn about what the future holds for Nebuchadnezzar. He will lose his mind for a period of seven years. During this time he will live like a beast of the field. Crawling around on all fours and eating grass. It was no doubt this part of the dream that most disturbed the king.

Once the king has finished recounting the dream he turns to Daniel. The king has no doubts that he

can interpret what it all means. He knows that Daniel has the Holy Spirit indwelling him. Today's sermon will be devoted to Daniel's explanation of the dream.

오늘의 성경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잠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두 주일 동안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꿈은 왕의 생애가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고 첫 번째 꿈과 불타는 용광로 사건이 있는 지 30 년 정도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왕은 매우 크고 인상적인 나무와 관련된 꿈을 꾸고 괴로웠습니다. 첫 번째 꿈과 마찬가지로 그 꿈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학자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꿈 설명한 다음 그들의 해석을 기다렸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꿈은 상당히 단순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자들은 왜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숨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여 꿈을 해석할 수 없게 막으신 듯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니엘은 바빌론 이름인 벨트사살로 불립니다. 왕은 다니엘이 자신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그는 전에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하여 통찰력을 주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왕은 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꿈에서 그는 땅 한가운데에 서있는 거대하고 장엄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주 커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키가 클 뿐만 아니라 이름답고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왕은 세 가지 면에서 나무의 유용성을 설명합니다. 첫째, 그것은 과일을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그로하여 모든 사람에게 맛있는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잎과 가지는 동물들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나무의 가지는 새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나무는 왕과 그가 이끄는 제국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충분히 명확합니다. 왕과 그의 제국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여기까지 꿈은 왕과 바빌론을 긍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곧 바뀔 것입니다.

왕이 여기서 "감시자(watcher)"라고 언급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낸 특별한 천사 메신저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이 감시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나무를 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와 함께 그루터기만 땅에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 □□ □□에 다시 자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루터기가 철과 못줄로 묶일 것이라는 메시지에 의해 더욱 강조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주에 약간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왕이 미래에 경험할 광기를 언급하는 걸까요? 그가 한동안 "미친 상태"로 지내게 될까요? 아니면 왕이 제 역할을 못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국을 보호하고 보존하실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둘 중 하나거나 둘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꿈의 이 시점에서 강조점이 나무에서 왕을 묘사하는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게 됩니다. 그는 7 년 동안 정신이 나카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들짐승처럼 살 것입니다. 네 발로 기어다녀 풀을 먹습니다. 이 부분이 왕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왕이 꿈을 다 이야기한 후 다니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니엘이 그 모든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성령이 임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19 Then Daniel, whose name was Belteshazzar, was astonished for a time, and his thoughts troubled him. So the king spoke, and said, "Belteshazzar, do not let the dream or its interpretation trouble you."**

**Belteshazzar answered and said, "My lord, may the dream concern those who hate you, and its interpretation concern your enemies!"**

Have you ever had the unfortunate job of having to give someone some disturbing news. Perhaps you worked in a company and had to tell an employee that you were "letting them go." Maybe you

had to report to someone some sad news about a family member or friend. I remember my sister having to call me to tell my father had died suddenly and without warning. It's never easy to be the bearer of bad news. I'm sure even people who have been trained in this area such as police officers and doctors find it challenging.

This is the situation in which Daniel now finds himself. Having to be the bearer of some extremely bad news. The king is expectant, waiting for an interpretation. The Latin Vulgate renders the opening to this verse as follows, "*He (Daniel) silently reflected on the particulars of the dream just related.*"

I think this translation whilst being pithy and elegant rather underplays the effect the dream revelation had upon Daniel. I think he did rather more than just mull it over quietly. He was really troubled or disturbed by the dream.

Now we know that God had revealed to Daniel the meaning of the dream, but instead of immediately reporting this to the king he delays for "a time." How long was this delay? How long is, "a time?" Some English bible versions specify that he waited for one hour (KJV). I'm not sure that we can be this precise. The phrasing could mean a literal 60-minute passage of time, or merely a vague (indeterminate) length of time. Most translations therefore play it safe and say it was, "a while," or a "short / brief time." However long it actually was it was long enough to prompt the king to interject and reassure Daniel that all will be well. Nebuchadnezzar could clearly see that Daniel was in some distress or discomfort. So he reassures Daniel that he will not be punished for telling the truth.

The big question we have to ask is as follows. Why was Daniel so troubled? Why did he hesitate in delivering the news? There are a number of possibilities. Let me suggest three.

Firstly, perhaps Daniel was genuinely shocked and surprised by the dream. Maybe he was flabbergasted by what God was about to do to Nebuchadnezzar. So Daniel was quite taken aback and needed some time to process or digest this information himself.

Secondly, as I said in my preamble it's not easy to deliver bad news. How do you find the right words and adopt the right tone? Related to this difficulty is the temperamental and volatile nature of the king. As we have seen he is a man of violent outbursts of anger. Nebuchadnezzar was a prideful and arrogant man. He refused to be accountable to anyone or to acknowledge subordination to any god or other human being. How therefore do you tell such an unpredictable person this disturbing news? Scripture includes other examples of ungodly men punishing the Lord's messengers for telling the truth (1 Kings 22:26–28; Mark 6:17–18). So perhaps Daniel is concerned for his own safety.

Now in saying these things I don't want you to get the wrong impression of Daniel. Daniel is not wavering in his faith, or in any way contemplating not telling the truth. We know this because he later urges the king quite bluntly to stop sinning and appeal to God's mercy. This demonstrates that he is not fearful of speaking truth to power. But perhaps he wanted some time to think about how best and most effectively to explain the dream to the king.

Thirdly, perhaps this delay reflects Daniel's caring and compassionate nature. They had worked together for around 30 years. We might easily imagine that a bond of admiration, or even friendship had developed between them. The king appreciated Daniel's wise and learned counsel and perhaps Daniel had some affection for the king. I'm not suggesting of course that Daniel had forgotten that the Babylonians had destroyed his homeland and taken his people into exile. This is a truth that was seared into his soul. But despite this he would still have acknowledged that the king had treated him fairly well, and provided him with many opportunities. So what I'm saying here is that Daniel's heart was concerned for the king and grieved over what he had to tell him. So it's entirely possible that he paused here to consider how to give the king the dream interpretation with the proper degree of gentleness and respect.

There is much we can learn from Daniel here. He demonstrates the appropriate attitude of respect that we should have for authority. We are to respect our leaders even when (as in most cases) they



둘째, 서문에서 말했듯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절한 말을 선택해서 적절한 말투로 전해야 할까요? 특히나 왕의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성격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최고의 권위에 있고 어떤 신이나 다른 인간에게 종속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예측불허인 사람에게 이런 불안한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처벌한 예가 있습니다(열왕기상 22:2 6-28; 마가복음 6:17-18).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은 자신의 안전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니엘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왕에게 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매우 노골적으로 촉구했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왕에게 그의 꿈에 대해 가장 최선이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셋째, 아마도 이 지연은 다니엘의 배려심과 자애로운 성격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약 30 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존경심이나 우정 같은 유대감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현명하고 학식 있는 조언을 감사히 여겼고 아마도 다니엘은 왕에게 약간의 애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다니엘이 바빌론인들이 그의 고국을 파괴하고 그의 백성을 포로 삼은 사실을 잊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에 새겨진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다니엘에게 잘해줬고 많은 기회를 주었음을 다니엘은 인정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이 마음 속으로 왕을 걱정했고 그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꿈의 내용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잠시 멈춰 왕에게 꿈의 해석을 어떻게 적절한 정도의 온유함과 존경심을 가지고 전할 지 고려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는 우리가 권위자에 대해 가져야 할 적절한 존경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대부분의 경우처럼) 믿는 자가 아닐지라도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지도자들이 장려하는 정책이나 삶의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열정적으로 반대할 수 있지만 존경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낙태를 지지하거나 장려하는 모든 정치 지도자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저에게 이 문제는 흑과백입니다. 낙태는 살인과 같습니다. 슬프게도 서방 정치인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할 만큼 담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직업을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완충적으로 낙태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격렬하게 반대할지라도 저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존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죄와 살인을 부추기는 것에 관해서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진실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이 왕에 대한 걱정을 강조하면서 끝납니다.

**“대왕이시여 그 꿈과 해석이 대왕께서 마땅히 원수들에게 관한 것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적용되지 않고 대신 왕의 적들에게 해당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니면 다니엘이 왕의 적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고통받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것입니다. 계속 읽어 보시다.

**20 “The tree that you saw, which grew and became strong, whose height reached to the heavens and which *could be* seen by all the earth, 21 whose leaves *were* lovely and its fruit abundant, in which *was* food for all, under which the beasts of the field dwelt, and in whose branches the birds of the heaven had their home—**

Now you may wonder why Daniel goes through this rather tiresome process of explaining to the king his dream. The king had experienced the dream and hardly needed to be told what he himself had dreamt. But it does serve a useful purpose. When you are about to impart some bad news the more information you provide the better and more authentic you sound. Let me give you an

example.

Suppose a police officer has to tell someone that there has been a traffic accident and that a family member has been rushed to hospital. They don't just say, someone in your family has been taken to hospital following a car crash. Instead, they say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the following,

“At 7:45 this morning on the road from Anyang to Gunpo a Mr Kim Ji Sung who was driving a blue BMW was involved in a collision. He received some minor injuries and has been taken to SAM hospital.”

Because this news carries clear and verifiable facts it hits home and registers. You know your family member is named Kim Ji Sung. You know that he was going to work at this time and place, you also know that he drives a blue BMW. So as a consequence you accept the report and hurry to the hospital.

In a similar kind of way Daniel reports the facts of the king's dream. This serves the purpose of reassuring the king that he fully understood the dream, and as a result would be able to interpret it accurately. Let us read on.

**20 왕이 보신 그 나무가 크게 자라서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되었으며 21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가지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으며 들짐승이 그 그늘에서 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고 하였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그의 꿈을 다소 지루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왕 자신이 그 꿈을 꾸었고 자기가 꾸은 꿈의 내용을 다시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용한 목적을 제공합니다. □□ □□□ □□□□ □□□□ 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더 낮고 더 진실되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누군가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가족 중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말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족 중 한 명이 교통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오늘 아침 7 시 45 분 인양에서 군포로 가는 길에서 파란색 BMW 를 운전하던 김지성씨가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SAM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슴에 와 닿고 기억에 남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김지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 시간과 장소에서 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파란색 BMW 를 운전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보고를 받아들이고 병원으로 서둘러 갑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다니엘은 왕의 꿈에 대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것은 왕에게 그가 꿈을 완전히 이해했고 결과적으로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계속 읽어 보십시오.

**22 it is you, O king, who have grown and become strong; for your greatness has grown and reaches to the heavens, and your dominion to the end of the earth.**

After accurately repeating the details of Nebuchadnezzar's dream Daniel here confirms that the tree symbolizes the king, himself. There is no ambiguity surrounding his words. He is blunt and to the point, **it is you, O king**. Often we try to make hard news more palatable or easy to take. One tactic for doing this is to take a circuitous route to saying something that would be easier to just state plainly.

Take for example the way many in the modern church deal with the issue of sin. Its frequently dumbed down, washed over, ignored or pushed to one side so that we can emphasise love and grace. Often the message we hear today in many churches is that we shouldn't interfere in people's lives. It isn't our place to tell people that what they are doing is sinful. Now, I ask you to consider whether you think this is helpful? Is this really the best approach. Obviously not, and here's why. Unless you know what you are doing is wrong how would you know to stop. It's better, and more helpful therefore to be honest and tell people that their sin is rebellion against God and a

transgression of His law. We need to tell them in a clear way that unless they confess, repent and put their faith in Christ that their sin will result in death. That's the loving approach. It's actually unloving to conceal the truth from people just because its "harsh" and might offend them. Daniel then comes straight to the point. This dream he tells the king concerns you.

During the past 30 years Nebuchadnezzar had become strong and powerful. His fame had spread throughout the ancient world. He was respected, and also feared as being the head of the world's most powerful empire. As an absolute monarch he made all the important decisions. Because of this the empire's success or otherwise depended upon him. We know that he was highly successful. History tells us that he had made a great success of things.

This may have been partly down to luck, or fortunate timing, but was more likely because Nebuchadnezzar was a brilliant, shrewd and inspired leader. We must also never forget that ultimately any ruler or any nation's success depends upon God. It is the sovereign ruler of the universe who allows empires to flourish. And it is because all things rest in God's mighty hands that as we are about to see He can bring things to a close incredibly swiftly.

The good news of the dream has been recounted. We now move onto the bad news.

## 22 왕이시여 이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대왕께서는 점점 강성해져서 왕의 위대하심이 하늘에 닿았고 왕의 권세는 땅 끝까지 미쳤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의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반복한 후에 다니엘은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점을 직설적으로 언급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소식을 더 쉽게 받아들여지도록 말하려고 애씁니다. 이를 위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더 수월할텐데 빙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죄는 종종 모르는 척 하고 화석하고 무시하거나 못본 척합니다. 오늘날 종종 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삶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이런 태도가 사람들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말로 최선의 접근 방법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죄임을 모른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멈추겠습니까?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그분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낫고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그들의 죄는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접근 방식입니다. 단지 "가혹하고"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로 요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왕에게 이 꿈이 그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30 년 동안 느부갓네살은 강력해졌습니다. 그의 명성은 고대 세계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으로서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절대군주로서 그는 모든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제국의 성공 여부는 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역사는 그가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행운 때문이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느부갓네살이 뛰어나고, 영리하며, 영감을 받은 지도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모든 통치자나 국가의 성공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국이 번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분은 놀랍도록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꿈의 좋은 소식은 이미 전해졌습니다. 이제 나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 “And inasmuch as the king saw a watcher, a holy one, coming down from heaven and saying, ‘Chop down the tree and destroy it, but leave its stump and roots in the earth, bound with a band of iron and bronze in the tender grass of the field; let it be wet with the dew of

**heaven, and let him graze with the beasts of the field, till seven times pass over him'; 24 this is the interpretation, O king, and this is the decree of the Most High, which has come upon my lord the king:**

Daniel refers again to Nebuchadnezzar's dream. He recalls the angelic being (the watcher) who is sent down from heaven by God. This watcher orders that the tree be cut down to the point where only its stump remains. The tree as we have established represents the king, and we spoke previously about what exactly this binding might mean. It seems reasonable to think that the binding speaks to the king's forthcoming period of insanity. He will be "bound" by the grip of madness and constrained by an animalistic mind. The information given about the exact nature of this malady is very interesting. We are told that he will act like a beast of the field. He will wander around eating grass like an ox or cow.

Now you might read this and think that what you are reading is poetic language to describe someone who is behaving in a crazy or inexplicable fashion. But allow me to tell you the experiences of Dr Raymond Harrison.

Dr Harrison is best known as an Old Testament scholar however he also worked for a time in the medical field. In 1946, he was observing patients in a British mental hospital. Whilst there he was fascinated to discover a patient suffering from boanthropy. Boanthropy is a specific type of zoanthropy. What on earth you may wonder is that. Well, zoanthropy is a very rare condition in which a person believes themselves to be an animal. The most famous kind of zoanthropy is lycanthropy, this is where a human being thinks themselves to be a wolf. Boanthropy is derived from the Latin "bous" meaning bull or cow. So someone suffering from this condition believes themselves to be a cow or bull and acts accordingly.

Dr Harrison witnessed a young man in his early twenties who was suffering with boanthropy. He had been hospitalized for about five years. He was said to be of average height and weight and in good physical condition. His mental symptoms included pronounced antisocial tendencies. And because of this, he spent the entire day, from dawn to dusk, outdoors, on the grounds of the institution. These are Dr Harrison's personal observations.

"His daily routine consisted of wandering around the magnificent lawns, in which the otherwise dingy hospital situation was graced, and it was his custom to pluck up and eat handfuls of the grass as he went along. On observation, he was seen to discriminate between grass and weeds, and on inquiry from the attendant, the writer was told the diet of this patient consisted exclusively of grass from hospital lawns. He never ate institutional food with other inmates, and his only drink was water. I was able to examine him, and the only physical abnormality noted consisted of a lengthening of the hair and a coarse, thickened condition of the fingernails."

Isn't that an interesting account. Nebuchadnezzar will suffer a very similar fate.

He will become like an animal, aimlessly wandering around and eating grass like a mindless beast for "seven periods of time." As we noted last time interpreters differ on their understanding of how long these periods of time are. As I explained a "time" in Daniel refers to a year. So seven "times" obviously means seven years. The king will suffer with this malady for seven long years. The number seven in Scripture is often connected with a perfect work of God. So here we might understand this as being God's perfect and complete judgment on Nebuchadnezzar.

What a truly terrible humiliation for the king. For a man of this power and prestige to be humbled and disgraced in this way. It's impossible for us to appreciate the shame he would have felt. Imagine if the president of Korea were afflicted in this way. If everyday he could be seen crawling around on the lawn outside the Blue House eating grass.

Daniel finishes this pronouncement by telling the king that this is the decree of the Most High God. This is what God has determined. Therefore it is certain to happen exactly as predicted. As a powerful ruler, Nebuchadnezzar assumed he could subdue any threat to his rule. He would soon learn an important lesson on humility. He would have to accept that he could not subdue, delay, or alter God's decree. Let us continue.

**23 또 대왕께서 보시는 가운데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 ‘그 나무를 베어 없애 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철과 놋줄로 잡아맨 채 풀밭에 그대로 두어라. 이 사람이 하늘의 이슬을 맞고 7 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라. 고 했는데 24 왕이시여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게 일어날 일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시 느부갓네살의 꿈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낸 천사(감사자)를 언급합니다. 이 감사자는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만 남기도록 명령합니다. □□□□□□□□□□, 이 그루터기를 묶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묶음이 왕이 경함하게 될 광기 기간을 뜻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는 광기의 손아귀에 "뭍일" 것이고 짐승같은 마음에 의해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질병의 정확한 본질에 대한 내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가 들짐승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소처럼 풀을 먹으며 헤맬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이 마친 듯이 행동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시적 언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먼드 해리슨 박사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리슨 박사는 구약 성경학자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의학 분야에서도 알았습니다. 1946 년에 그는 영국의 정신 병원에서 환자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안트로피 Boanthropy 를 앓고 있는 환자를 발견하고 매료되었습니다. 보안트로피는 조안트로피 Zoanthropy 의 한 분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조안트로피는 사람이 자신을 동물이라고 믿는 매우 드문 질환입니다. 가장 유명한 조안트로피는 늑대인간으로 인간이 자신을 늑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안트로피는 황소나 소를 의미하는 라틴어 "bos"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이 질환을 앓는 사람은 자신을 소나 황소라고 믿고 그처럼 행동합니다.

해리슨 박사는 보안트로피를 앓고 있는 20 대 초반의 청년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약 5 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는 평균 키와 체중에 신체 상태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의 정신적 증상은 뚜렷한 반사회적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병원 부지 내 아오에서 보냈습니다. 다음 내용은 해리슨 박사의 개인적인 관찰입니다.

"그의 일상은 암울한 병원 환경을 그나마 아름답게 보이도록 조성된 멋진 잔디밭을 돌아다니는 것이었는데 그는 돌아다니면서 풀을 한 줍씩 뽑아 먹었다. 관찰 결과, 그는 풀과 잡초를 구별하였고, 간병인에 따르면 이 환자의 식단은 전적으로 병원 잔디밭의 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는 다른 수감지들과 함께 병원 음식을 결코 먹지 않았고, 그가 마신 것은 오직 물 뿐이었다. 그를 검사해 본 후 발견한 유일한 신체적 이상은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손톱이 거칠고 두꺼워져 있었다."

흥미로운 설명이 아닌가요? 느부갓네살도 매우 비슷한 운명을 겪을 것입니다.

그는 짐승처럼 되어 "일곱 때 seven periods of time" 동안 목적 없이 돌아다니며 생각 없는 짐승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해석자들은 이 기간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다니엘서의 "때 time"는 1 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때 seven times"는 분명히 7 년을 의미합니다. 왕은 이 질병으로 7 년 동안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종종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서 우리는 이것을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는 참으로 끔찍한 굴욕입니다. 그토록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굴욕과 모욕을 당할거라니 그가 느꼈을 수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 그가 청와대 밖 잔디밭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기어다니는 것을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자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왕에게 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강력한 통치자로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통치에 대한 어떤 위협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 검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칙령을 제압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25 They shall drive you from men, your dwelling shall be with the beasts of the field, and they**

**shall make you eat grass like oxen. They shall wet you with the dew of heaven, and seven times shall pass over you, till you know that the Most High rules in the kingdom of men, and gives it to whomever He chooses.**

This is the climax of Daniel's terrible news. I spoke a few moments ago about the young man in the British mental institution in the 1940's. In ancient Babylon there were no mental hospitals, and no way to effectively house or treat people with mental disease. Sadly their fate was often to be driven out of the towns and villages and into the wilderness where the wild animals lived.

This is reflected here when Daniel tells the king he shall be with the beasts of the field. However we know that at the end of this period that the king will be restored. So it seems unlikely, especially given his status that he was driven away as a normal (insane) person would have been. We might even speculate that he was caged like a wild animal within the palace grounds. Alternatively he may even have been housed with the other livestock?

There is also some debate about whether the king actually suffered from boanthropy. Did he really believe he was a cow? Or due to his mental state did he just live like an animal, and eat grass because that was all there was to eat? Whatever the reality it was miserable life he was to endure for seven years.

This dire prediction does however contain one tiny glimmer of hope. That glimmer comes in God's purpose for afflicting the king in this way. God is sending the seven years of madness to teach the king a lesson on humility. The king's condition would continue until the king had learned, and accepted that the Most High God is sovereign over all things. Once the king realised and openly acknowledged that it was God, and not him who was in charge then things would return to normal. Let us read on.

**25 대왕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며 7 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그때 왕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전하는 가혹한 소식의 절정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1940 년대 영국의 정신 병원에 있었던 젊은이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바빌론에는 정신 병원이 없었고,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거나 치료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종종 마을로부터 쫓겨나 야생 동물들이 사는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들짐승과 함께 살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간이 끝나면 왕이 회복될 것을 압니다. 특히 그의 지위를 감안할 때 그가 보통 (마침) 사람처럼 쫓겨났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가 궁전 경내에서 야생 동물처럼 우리에게 갇혀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는 다른 가축들과 함께 수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실제로 boanthropy 라는 병에 걸렸는 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자신이 소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정신 상태 때문에 그냥 짐승처럼 살았고, 먹을 것이 풀밖에 없어서 풀을 먹었을까요? 현실이 어땠는지 그는 7 년 동안 비참한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예언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빛은 이런 식으로 왕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겸손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7 년 동안의 광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왕의 상태는 지금처럼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왕이 배우고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왕이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심을 깨닫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면 그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26 “And inasmuch as they gave the command to leave the stump *and* roots of the tree, your kingdom shall be assured to you, after you come to know that Heaven rules.**

What a beautiful example we see here of both God's grace and mercy. We often use these words interchangeably and whilst there is some degree of overlap they are not exactly the same thing. One similarity they do have is that in both cases the sinner gets what they do not deserve.

So allow me to define the subtle differences and then apply them to king Nebuchadnezzar.

▶ **Mercy means not giving sinners the punishment that they do deserve. It is the act of withholding deserved punishment,**

▶ **Grace means positively giving sinners what they do not deserve. It is the act of endowing unmerited favor.**

God then showed great mercy to king Nebuchadnezzar. He was an evil and wicked sinner who ruled with a heavy hand. He devised cruel and barbaric punishments and tortured his enemies.

He had crushed and conquered many nations and overseen the loss of many hundreds of thousands of lives. Not only this but he was a proud and arrogant man who had made an idol of himself. He deserved therefore to feel God's wrath to the fullest. And yet God was merciful. His insanity would be limited and better yet his throne and kingdom would be reserved for him. This is an act of God's grace. In restoring his throne God is crediting him with something he does not deserve.

However with this being said we need to note that this restoration is conditional. The throne and kingdom will only be restored when the king comes to know, and accept that Heaven rules. Heaven here of course stands in place of God. The king must be broken. He must be cured of his sickness of pride and arrogance and come to know that God is in charge. When, and only when this occurs will things return to normal.

In our own lives we also must acknowledge God's mazing mercy and grace. We all deserve to instantly be zapped for the wickedness in our hearts and minds. Even if we do not go around physically murdering people we all have murderous intent within our hearts. God in his mercy does not punish us but instead extends to us His patience. But best of all is God's gracious act to save us. He sent His beloved Son, the Lord Jesus Christ into the world to take our deserved place on the cross. He died bearing our sins and taking the punishment we so richly deserve. How truly wonderful our mighty God is. Let us conclude our study for today with verse 27.

## 26 또 천사들이 그 그릇타기는 남겨 두라고 명령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왕이 인정 할 때 대왕께서 나라를 되찾게 될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아름다운 예를 보게 됩니다. 이 두 단어들은 종종 바뀌서 비슷하게 사용 하는데 어느 정도 중복되는 의미가 있지만 정확히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두 단어가 가진 한 가지 유사점은 죄인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단어의 미묘한 차이점을 정의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 **자비mercy 는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보류하는 행위입니다**

▶ **은혜grace 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호의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꺾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는 철권으로 통치한 악하고 사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이단적인 형벌을 고안하고 적들을 고문했습니다.

그는 많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복했으며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우상으로 만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셨습니다. 그의 광기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지속되고, 결국에는 그의 왕좌와 왕국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이 왕좌를 회복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회복이 조건부임을 알아야 합니다. 왕이 천상에서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에만 왕좌와 왕국이 그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찬상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왕은 깨져야 합니다. 그는 교만과 오만함의 병에서 치유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과 생각 속의 사악함으로 인해 즉시 죽어 마땅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살해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마음 속에 살인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대신 인내하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고의 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그분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자리인 십자가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지요. 오늘의 공부를 27 절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7 Therefore, O king, let my advice be acceptable to you; break off your sins by *being* righteous, and your iniquities by showing mercy to *the* poor. Perhaps there may be a lengthening of your prosperity.”**

Daniel could have delivered the dream's interpretation and stopped. Given the nature of the dream and the king's volatile temper we wouldn't blame Daniel for deciding not to say anything further. But that was not what he did. Daniel was a true man of God and in possession of a pastor's heart. A pastor's heart should be full of love and compassion. They should not desire to see any perish but instead desire that all turn to God and embrace the salvation He freely offers. Any pastor who does not have this kind of heart is in the wrong business. Daniel clearly had it. He offered the king some sound advice or counsel. We can divide his advice into two parts.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part centres on the king's relationship to God. He advises the king to break off his sins and seek to be righteous. The idea of breaking off conveys nicely the idea of being chained to, or enslaved by sins. In the old days prisoners were prevented from escaping by having their ankle chained to a large metal ball. Everywhere they went they had to drag this heavy object along with them. It's a nice picture of how we are chained to our sin nature. Fortunately for us Christ forever shattered those chains and set us free from the bondage to sin. So Daniel is urging the king to confess and repent of his sins before God.

The second part refers to his relationship to his people. Daniel is calling upon the king to reconsider the way he treats the poorest most needy in society.

Ancient monarchs were typically cold and ruthless. They didn't have a great deal of care or concern for the little people who made up the population. They were just there to act as slave labour for building projects, or serve as cannon fodder in the army. Jewish rulers by contrast were called upon to act as shepherds who led and protected the people. This was an alien concept to the kings of Babylon. So Daniel is calling for the king have some care and compassion for those he ruled over.

We might neatly summarise what Daniel is calling for as follow,

**First get your relationship right with God, turn from sin, accept His righteousness, and then begin to do good to those around you.**

Daniel gave the king this wise counsel because he wanted the king to change. He knew that the God he served was forgiving and merciful. He hoped therefore that it was not too late. If the king followed his advice then God might be merciful to him. God may stay His hand of judgement.

We are left to guess at how the king received this staggering display of fearlessness on the part of Daniel. What a nerve Daniel had. To speak to a king in this open and honest way would have been unheard of. It shows us again just how bold and courageous Daniel was. But as we have said before it's actually an act of love to present people with the truth. It gives them an opportunity to make a new beginning and seek after God. In this case king Nebuchadnezzar knew all the facts. He knew enough about Daniel's God to know that what Daniel spoke was the truth. He had seen the power and might of Daniel's God at work. So what did he do? Did he follow Daniel's counsel and repent? Sadly he did not. He was given an opportunity to change, and he spurned it. The consequences of

this disastrous decision will be the subject of our next sermon.

## 27 그러므로 왕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죄를 버리고 옳은 일을 행하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왕이 계속 반역을 누리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꿈 해석만 하고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해몽 이상의 어떤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꿈의 내용과 왕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감안할 때 우리는 다니엘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서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목사는 직업을 바꿔야 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충실한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조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왕과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왕에게 죄를 끊고 의를 추구하라고 조언합니다. 죄를 breaking off 는 것은 죄의 사슬에 묶여있거나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음을 잘 전달합니다. 옛날에는 죄수들의 발목을 큰 금속 공에 묶어 도망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 무거운 것을 끌고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 잘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다행히도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그 사슬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나라에서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재고하라고 촉구합니다.

고대 군주는 대체적으로 냉혹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는 보통 백성들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건설 사업에 투입될 노동력이거나 군대에서 총알빛이로 사용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이끌고 보호하는 목자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빌론의 왕들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해 약간의 보살핌과 연민을 베풀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요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죄에서 돌아오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 시작하십시오.

다니엘은 왕이 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왕에게 이 현명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왕이 그의 조언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손을 멈추실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다니엘의 이 놀랍도록 두려움 없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얼마 동안 왕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담대하고 용감했는지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줍니다. 이 경우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말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다니엘의 조언을 따르고 회개했을까요? 슬프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재앙적인 결정의 결과는 다음 설교에서 다룰 것입니다.

### Lessons to learn

I have two comments to make based on today's passage.

오늘의 본문에 기초하여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1 Having a pastor's heart

I spoke during the sermon about Daniel having a pastor's heart. I defined it back then as being the

desire that everyone hear the truth of the gospel message. Simply stated it is desire to see that none are lost due to their ignorance of the truth.

Let me tell you a story to illustrate my point. I'm going to take you back to London in the 1830s. A famous Swiss preacher named Dr César Malan was touring the UK and preaching in various churches. Whilst in London he had been invited to a music concert. A young woman was to play and sing for this distinguished man and his guests. By all accounts her performance was wonderful. When she finished she was given a rapturous round of applause. After the concert Dr Malan met the young woman and congratulated her on her singing. After praising her abilities he went on to say the following,

“I thought, as I listened to you tonight, young lady, how tremendously the cause of Christ would be benefited if your talents were dedicated to Him.” He then went on, “You know, young lady, you are a sinner in the sight of God, but I am glad to tell you that the blood of Jesus Christ, His Son, cleanses you from all sin.”

The young woman was understandably shocked and taken aback by the pastor's bluntness. She responded quite fiercely to the pastor stating that she had never been so harshly spoken to. Dr Malan replied,

“Young lady, I mean no offence. I pray God's Spirit will convict you.”

Later that night Dr Malan's words niggled the young woman. She was unable to sleep. At 2:00 in the morning, she jumped from her bed and grabbed a pencil and paper. With tears running down her cheeks she wrote the following words.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But that Thy blood was shed for me  
And that Thou bidst me come to Thee  
O Lamb of God I come,’

You may recognise these words as being the opening to the famous hymn “Just as I am.” the young woman so offended by Dr Malan's words was Charlotte Elliott. She went on to become a famous hymn writer. Now in Britain at that time Dr Malan would have been considered rude. People would have said he acted in an ungentlemanly way in speaking to this young lady in so blunt a way. But think of things this way.

Imagine someone is hanging from a cliff. Their grip is fading. They are about to plummet to a horrible rocky death. Do we need a gentlemanly approach?

“I say, do you mind if I reach down, and carefully minding the fine cut of your clothes see if I might affect a rescue.”

Or do we need prompt and forceful action?

“Let me grab you and yank you up!”

Surely the later. It's the same for the lost. For those who will die without coming to Christ. Sometimes bluntness and plain speaking is required no matter the offence caused. It is after all a matter of life and death and should be treated as such. May we, like Daniel and Dr Malan have pastor's hearts that desperately desire to tell people about Jesus and see them saved no matter the offence we may cause.

## **1 목사의 마음을 갖는 것**

설교 중에 다니엘이 목사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듣기를 바라는 소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누구도 진리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The same is true for us today. Whilst we are still here on earth breathing it's never too late to confess our sins and come to Christ. We should take some comfort from this. This may be a message from God directly to you. Perhaps you have not yet confessed your sins, repented and put your faith in Christ. It's not too late, do it now. Or perhaps its someone you know. You may have family members or friends who are still lost. Maybe they are just like Nebuchadnezzar stubbornly refusing to hear and respond to the gospel. Again don't despair. Continue to tell them the gospel and keep them in your prayers. Remember it only becomes too late when we die. Then if we have not put our faith in Christ it really is too late.

Now only God knows when our days are over. So whilst I say it's never too late one day it will be. This means we need to have a degree of urgency. I implore you, don't put off until tomorrow what needs to be done today. Tell people about our loving saviour and leave the rest up to God.

## 2. 결코 늦지 않다

성경에 나오는 특정한 사건의 연대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의 생애가 끝나갈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그 왕은 60 대 중후반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는 60 년 동안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기 삶의 신이었고 자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에게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것처럼 높은 나이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에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위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중 누구는 아직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 당장 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의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복음을 듣고 응답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느부갓네살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죽고 난 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로 죽는다면 그 때는 정말 너무 늦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날이 언제 끝날지 아십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언젠가는 너무 늦을 때가 올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느 정도 급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간청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구세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